“코로나로 만날수는 없지만, 韓日 환경 살리기 계속돼야”

조선일보·마이니치 공동개최 한·일 국제환경상 시상식 코로나로 한·일 양국서 열려 축사는 온라인으로 주고받아

26회 한·일 국제환경상 시상식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2일 한국 조선일보 편집동과 일본 마이니치신문사 임원실에서 각각 개최됐다. 양측 신문사 대표 축사는 온라인으로 교환했다.

한국 측 시상식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봉서 전 상공부 장관, 박천규 전 환경부 차관 등 20명 내외가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한국 측의 김명자 심사위원장(전 환경부 장관)은 “국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철인의 강인함과 현인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조용하면서도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기후 정책의 합의를 도출해낸 이회성 유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의장을 수상자로 선정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수상자인 이회성 IPCC 의장은 “오늘 상을 받게 된 것은 기후 문제 해결을 통해 미래를 만들겠다는 말을 하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며 “생태계 균형을 깨지 않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방식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일본 측 시상식은 마이니치신문사의 마루야마 마사히로(丸山昌宏) 사장, 가토 사부로(加藤三郎) 환경문명21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 수상 단체인 ‘물가에서 노는 모임(水辺に遊ぶ会)’의 아시카가 유키코(足利由紀子) 이사장은 지난달 14일 난치병으로 사망했다. 참석자들은 1분간 아시카가씨와 제1회 국제환경상 심사위원으로 활동 후 올해 사망한 C. W. 니콜씨를 추모했다.

물가에서 노는 모임의 아시카가 이사장의 남편인 아시카가 요시마사(足利慶聖)씨는 “병상에 있는 아내에게 수상 소식을 알려줬을 때는 의식불명 상태였다”며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은 데 대해 하늘나라에서도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아시카가 이사장의 남편이 들고 온 생전의 사진이 화제가 됐다. 사진은 2014년 전남 무안의 갯벌을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아내는 한국의 환경운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며 “수상식에 필요한 사진을 찾다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단체의 야마모리 다쿠미(山守巧) 사무국장은 “상금 1만달러는 앞으로 나카쓰 갯벌 보호 활동을 벌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도쿄=이하원 특파원, 김효인 기자

박상훈 기자

2일 열린 제26회 한일국제환경상 한국 측 시상식 기념사진. 김명자 심사위원장(왼쪽)과 수상자인 이회성 유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의장.

마이니치신문

일본 측 시상식 기념사진. ‘물가에서 노는 모임’ 야마모리 다쿠미 사무국장(왼쪽)과 이 모임의 대표였던 고(故) 아시카가 유키코씨의 사진을 들고있는 남편 아시카가 요시마사씨.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환경을 위한 26년 노력 아시아 대표賞 자리매김”

한·일국제환경상은 1995년 동북아시아 지역의 환경 보전에 한일 양국이 앞장서자는 뜻에서 마이니치신문사와 조선일보사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26년의 긴 세월을 이어오면서 이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환경상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자부합니다.

올여름 한일 양국은 폭우와 태풍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자연은 인류에게 환경 파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올 한 해에도 ‘하늘만 쳐다보는 물 관리’ ‘쓰레기산 이제 그만’ 등 다양한 환경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앞으로도 오랜 파트너인 마이니치신문사와 함께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이니치신문 마루야마 사장

“지구·지역 모두 생각하는 자연보호 보여줘”

올해의 수상자인 ‘물가에서 노는 모임’과 이회성 IPCC 의장은 환경의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었습니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 즉 ‘지구 규모로 생각하고, 자기 주변에서 행동하라’는 환경의 이념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단결하고, 반대 의견에는 비판으로 일관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분단의 시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는 자유롭게 세계에 전파될 수 있고 객관적 사실은 사실로 존재합니다. 신문은 사람들이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올바른 판단이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사회적 사명을 완수해 갈 것입니다.

“기후변화 갈수록 심각… 195개國 협력 이끌어내겠다”

한국 수상자 이회성 IPCC 의장

이회성〈사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의장은 지난 1992년 IPCC 단체의 제3실무그룹(사회·경제 분야) 공동의장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30년 가까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IPCC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과학적 증거를 내기 위한 유엔 전문기관이다. 전세계 195개국이 가입되어있다. 경제 전문가인 이 의장이 IPCC에 참여해 온 것은 기후변화와 경제 발전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2015년 IPCC 의장 당선 후 기후변화 대응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2018년 IPCC가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세계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이후에도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지 않았다. 선진국에선 정체 상태지만 개도국의 배출량은 계속 늘고 있다. 각국 정부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나라마다 다른 의견을 어떻게 설득하나?

“개도국과 선진국 간 간극이 분명히 있다. 개도국들은 ‘우리가 지구온난화 방지를 거부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활동에 동참할 여력이 없다’고 한다. 선진국들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IPCC 보고서를 만들 때도 서로 이해관계에 맞는 증거만 채택하려고 한다. 합의문 내용은 회원국들 간 협상을 통해 정해지지만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켜보고, 지원했다.”

-앞으로 계획은?

“2022년 IPCC 6차 평가보고서 발표가 예정돼 있다. 회원국들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평가하고 전 세계 기후 현황, 장기 기후 전망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8%가량 줄었다. 이것은 경제가 무너진 특이 상황이다. 6차 보고서에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하고 있다.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에 정책적 유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효인 기자

“주민과 함께 살려낸 나카쓰 갯벌, 평생 지켜가야죠”

일본 수상자 물가에서 노는 모임

일본의 ‘물가에서 노는 모임(水辺に遊ぶ会)’은 지난달 14일 난치병으로 사망한 아시카가 유키코(足利由紀子·57) 이사장이 1990년대 일본 오이타(大分)현 나카쓰(中津)시의 갯벌 매립에 관심을 가지며 시작했다. 그는 갯벌에 멸종위기 상태의 투구게를 비롯,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것에 감동했다. ‘나카쓰 바다의 훌륭함을 알리자’는 뜻에서 이 단체를 만들어 20년 넘게 갯벌 체험 모임을 주최하고 연구를 해왔다. 특히 갯벌의 중요성을 알리는 운동을 통해서 지역 주민 스스로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알도록 해왔다. 그 결과 나카쓰 갯벌 매립 움직임은 중단됐다.

이 단체의 야마모리 다쿠미(山守巧·51·사진) 사무국장은 “지역 주민이 갯벌 보전에 관심을 갖게 한 것은 아시카가 이사장의 역할이 크다”며 “앞으로도 그의 생각을 계승한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야마모리 사무국장과의 인터뷰.

-환경단체로서는 매우 특이한 이름인데.

“무작정 반대하는 식의 활동보다는 주민들이 자연을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부드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 있다. 돌아가신 아시카가 이사장은 데모하지 않고, 평생 그런 자세로 많은 사람을 만나 대화하고 설득해왔다.”

-나카쓰 갯벌은 원래 어떤 지역이었나.

“옛날엔 조개잡이로 유명한 곳이었으나 남획 등으로 한동안 버려진 죽음의 바다였다. 아시카가 이사장은 이름조차 없던 곳을 나카쓰 갯벌로 명명하며 주민이 와서 즐기는 곳으로 살려냈다.”

-나카쓰 갯벌 보존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 단체가 활동해서 나카쓰 갯벌에 800종 이상의 생물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중에서 30% 이상은 희귀종이다. 이런 곳을 지켜 나가야 하지 않나.”

-나카쓰시의 갯벌 매립 계획은 완전히 중단됐나.

“우리의 노력으로 갯벌을 매립하자는 얘기는 일단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언제든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에 보존 활동이 중요하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나카쓰 갯벌이 영구적으로 보존되기를 희망한다.”

도쿄=이하원 특파원

자본감소공고
[illegible]
2020년 11월 3일
삼화실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46, 708호(다동)
대표이사 이 남 표

역사상 초대박
신도시 최중심상가 분양
주거 약20만+삼성배후 약30만~
초역세권/로데오거리 최중심/
365일 북적/실투자7천만원부터
010-7276-8333

투자자 모심
(부동산 담보설정)
아파트.주택.토지.상가
연 24%
(신사역 8번출구) 강남 신사동, 신다온
02-546-4616
010-4554-8456

동탄2신도시 대형영어학원
임대 5년 계약완료
163.14㎡ 매5억4천백
월 220만원
1600-3873

★ 땅 ★
•홍콩항만과 비교되는 땅
•수도권 급매물 알짜 땅
•3~4년후 역개통시 대박땅
•5천~10억 소액투자가능
㈜대현 031-633-9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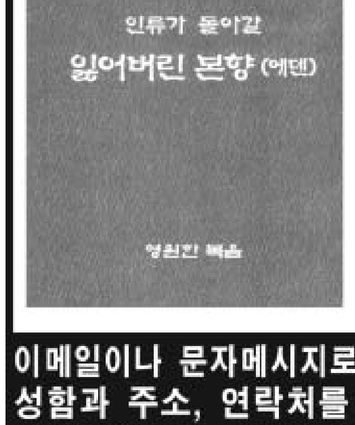
처분하기·힘든
부동산 교환
하실분.010-3605-5000

대박 수출사업
(세계 최초 개발)
※ 소개만해도 주식
☎010-5614-1009 ㈜티엔스

창원황씨 부사공파 연기 소종중
[중시조 : 13세손 황귀하(黃귀)]
종원 명부 열람 및 등록 공고
[illegible]
대표자 황영수(구청) / 연고항존자 황완희(명원)

조현병 완치
딱 한번의 기적
★효과100%, 특수비방★
☎ 010-8062-2588

광고주를 모십니다
₩198,000
모집·공고
투자자
₩132,000
학원·서적
기타영업
투자자 모집
투자금 1억 ~ 15억
고소득 보장 사업
교육 및 부동산 사업
02)724-5838
▲ 모집광고 샘플
가로2.7㎝ × 세로 2.9㎝
평일기준
가격이며
광고 종류와
횟수에 따라
단가할인 가능
ChosunMedia 조선일보
02)724-5838



아담의 타락 전 세계,
인류가 돌아갈 잃어버린 본향
구약에는 모세오경,
신약에는 4복음서가 기초가 되었다면,
이 말씀은 앞으로 도래할 새 시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두신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고자 하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책자를 받으실 분의
성함과 주소,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우편 발송)
이메일 : holy_cloud@naver.com
휴대폰 : 010-5967-0645 (문자만 가능)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소장 초빙 공고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기초과학연구원(IBS) 부설 연구소로서 수학 연구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어 수학 응용을 선도하고, 수학이 과학과 공학, 산업체와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모범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에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는 본 연구소를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이끌어 갈 비전과 리더십을 갖춘 분을 소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 공모직위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소장

□ 임기 : 임명일로부터 3년(연임 가능)

□ 응모자격
- ㅇ 해당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자
- ㅇ 해당 연구분야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 ㅇ 조직혁신에 대한 다수 경험과 의지를 가진 자
- ㅇ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자
-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제출서류

개인 응모	기관·단체 추천*
ㅇ 신청서 1부 ㅇ 이력서(사진첨부) 1부 ㅇ 자기소개서(A4 용지 5매 이내) 1부 ㅇ 직무수행 계획서(A4 용지 5매 이내) 1부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ㅇ 추천서 1부 ㅇ 이력서(사진첨부) 1부 ㅇ 자기소개서(A4 용지 5매 이내) 1부 ㅇ 직무수행 계획서(A4 용지 5매 이내) 1부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추천 가능 기관·단체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각 대학 및 관련 기관·단체

□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이메일 제출 시 담당자와 유선 확인 필요

□ 제출기한 : 2020년 11월 16일(월), 18:00까지
※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며,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접수처
- ㅇ 이메일 : invitation@ibs.re.kr
- ㅇ 우편 : (34126)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5 기초과학연구원 기획팀

□ 기타
- ㅇ 제출된 서류는 심사자료로만 활용되며, 서류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합니다.
- ㅇ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임 추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ㅇ 심사와 관련된 제반 기준 및 절차, 임명,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후보자의 국적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국내법 및 연구원 내부 규정 등을 따릅니다.
- ㅇ 기타 세부사항은 기초과학연구원 홈페이지(www.ibs.re.kr)를 참조하시거나 기초과학연구원기획팀(T. 042-878-81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1. 3.

기초과학연구원 원장